



新 한국의 방산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

— 新韓國의 防産政策方向」 심포지엄 개최 —



한국 방위산업 학회는 국내 외 안보환경변화와 新경제 정책에 부합된 방위산업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 3일 정부기관 및 대학, 연구소, 업체 등 관련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캐피탈 호텔에서 「新 한국의 방위산업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과제들은 방위산업진흥 회로부터 방산학회가 연구 용역을 수주하여 '93년 한해 동안 전문요원들에 의하여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내용으로 방위산업의 장기정책 방향과 현안정책 방향의 2가지로 구분하여, 총 12편의 연구과제중 5

편이 발표되었으며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방위산업이 처해있는 현실의 우려와 자구책의 시급한 마련에 공동대처하기로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였다. (賢)

방산물자와 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

정부 는 방산업체간 과당경쟁에 의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전문·계열화 규정을 국방부와 상공자원부의 공동훈령으로 확정 발표했다.

신훈령의 확정으로 현재 생산중인 방산물자는 지정된 방산업체에서 종전과 같이 생산하고 시행일 이후 착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본 규정이 적용된다.

발표된 훈령에 의하면 현재 지정된 방산물자를 화력, 탄약, 기동, 함정, 항공등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전문화품목(완성장

비) 계열화 품목(기능품)으로 2분화하여 생산하게 된다.

이로써 전문화 품목은 무기체계 분류기준, 소요기술 및 전용설비의 유사성에 따라 종전 33개에서 소·중·대 구경등 47개로 세분화하고 분야별로 1~2개 업체를 선정, 기술개발 촉진과 국산화를 적극유도키로 했다.

계열화 품목은 전문화품목의 기능품으로 전문기술이 요구되고 보호육성이 필요한 구성품, 부품 소부재중에서 2백43개를 선정하여 각 품목마다 1개업체만을 선정, 생산하여 납품토록했다.

무기체계 연구자, 생산자, 운용자 한자리모여 정보교환

— 업체 애로점 건의 및 발전방안 모색 —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무기체계 연구자, 생산자, 운용자간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국적 독자무기체계 개발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방진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 육군교육사령부, 각군관계관 30명과 방산업체 실무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부에서 전투발전체계 설명(육군교육사령부 박영하 준장)과, 제2부에는 국방기술정보유통체계 발전방향(국과연 김재수 박사), 종합군수지원 요소개발현황(현대정공 지영만 차장) 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과정에서 요구운용 능력서(ROC)기준 완화와 개발 초기단계부터의 명확한



ROC제시, 동일항목의 이중적인 시험평가지양, 중장기 무기체계와 소요 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업체로 부터 요구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참석자 전원이 공감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防産 현안문제 타개위한 간담회 개최

방위 산업진흥회는 방산관련 국방부 관계관 20여명과 업체대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17일 국방회관

대연회장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현안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국방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 및 응답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안병길 제2차관보와 정수열 방진회 상근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책입안부서의 과장들로부터 국방연구개발 추진방향, 해외협력확대방안, 방위산업육성 및 추진방향, 계약 및 원가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종합토론 順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하여 국방부와 업체간 신뢰증진 및 방위산업의 순조로운 추진이 기대된다.





한국형 구난전차 개발완료, 양산돌입

- 현대정공 국산화 성공, 기술파급효과 기대...



현대 정공(대표 유기철)은 K-1 전차의 계열 전차인 한국형 구난전차(K-1 ARV : ARMORED RECOVERY VEHICLE)를 개발완료하고 양산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12월 21일(화) 10시 同社 창원공장에서 황해웅 국방과학연구소장, 정몽구 현대정공 회장 등 유관기관 및 업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구난 전차의 명명식 및 출고식을 가졌다.

한국형 구난전차는 야전에 배치되어 K-1 전차의 정비지원과 견인작업 구난작업, 심수도하(DEEP FORDING)시 안전보호, 통행로 개척 및 참호작업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번 한국형 구난전차의 개발완료는 군의 기계화 부대의 기동력 및 전투력 증대는 물론, 국산화를 통해 첨단 제품 기술과 생산기술을 소화, 흡수함으로써 고급 기술의 국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 기동 및 공병장비 분야의 개발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 성능이 월등하여 가격 경쟁력만 확보되면 수출시장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산 장갑차 처녀 해외수출 凱歌

우리 의 기술진이 만든 장갑차가 첫 해외 수출된다.

대우중공업(대표 석진철)은 말레이시아에 한국형 K-200 장갑차 42대를 2천5백여만 불에 수출하기로 합의였는데 K-200 장갑차는 대우중공업이 지난 80년대초 미국제품을 모델로하여 독자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장갑차로 전투수행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동안 중·소형 합정과 소화기, 탄약, 개인장구류 수출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완제품 기동장비가 수출되기는 국내 처음 있는 일로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꾸준히 방위산업을 성장시켜온 결실이라 평가된다.

이번 장갑차 수출은 여러나라와 경합을 벌여 얻어낸 결과로서 현재 침체되어 있는 방위산업도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우위가 축적될때 활로개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준 결과이다. (賢)



DEFENSE SEOUL '93 스케치



KOEX와 한국테크노벤처(KTV)가 주관하고 국방부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삼성항공과 대양전기 등 국내 업체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8개국 86개 업체가 참가하여, 유도장비, 전자통신장비, 미사일, 전차, 항공기 등의 실물과 모형을 전시하였다

국내외 방산업체간의 최신정보교류 및 협력기회를 제공하고,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세계 첨단 기술업체들과의 교류 및 자본투자 등의 유치 등을 통한 국내기술 개발 촉진이라는 목적으로 개최한 「'93 국제군수산업전」이 '91년에 이어 두번째로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대륙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불참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방산업체가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 정밀과학장비 개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방산업체는 아직도 초보단계인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부차원에서 현안의 시급한 조치와 장기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현위치를 조명, 향후 방위산업이 나

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여, 민수분야 못지않게 치열한 세계의 첨단방산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업체의 경우 전자장비와 항공기술산업분야, 유도무기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기술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세계시장을 겨냥한 적극적인 활동이 엿보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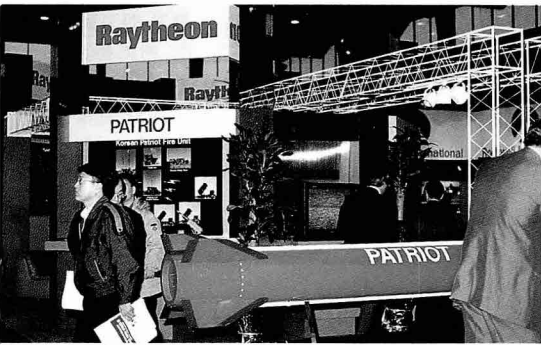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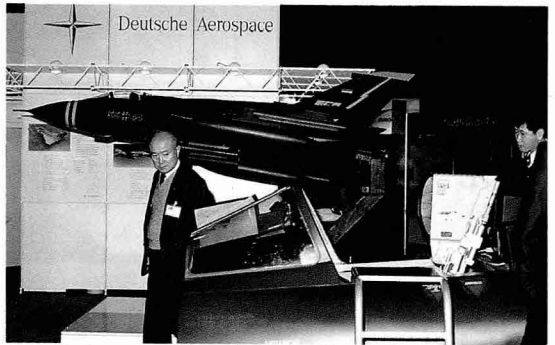
▲KFP 사업기종인 F-16 모형



▲삼성항공이 선보인 155mm 자주포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개한 Raytheon社



▲토네이도 항공기 모형을 전시한 Deutsche Aerospace



▲각종 유도탄과 헬기 모형을 전시한 Aerospatiale社



▲ALARM등의 미사일을 소개한 Bae社



▲각종 전자장비를 소개한 HUGHES社



▲GEC-MARCONI社. 뒤에 Sting-ray 어뢰가 보인다